

계층적 자질이론에 의한 순음화 현상에 대하여

이 시 진*

〈차 례〉

- | | |
|---------------------|------------------|
| 1. 서 론 | 2.3 경북방언의 자질계층구조 |
| 2. 계층적 자질이론 | 3. 순음화 |
| 2.1 도입 | 3.1 자질의 확산 |
| 2.2 자질 계층구조의 기존 모델들 | 4. 결 론 |

1. 서 론

언어학자들이 화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표면적인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구조주의 시대의 상황에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데는 N.Chomsky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Chomsky & Halle의 SPE.(The Sound Pattern of English)에서 전통적인 생성음운론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SPE에서 분절음은 변별자질의 집합체로 보아 변별자질을 최소단위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는 성조와 같은 초분절음소의 운소를 분절음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명하려고 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분절음의 음운현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소위 자립분절이론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자립분절이론에서 변별적 자질들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 조음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변별적 자질들 각각의 독립적 행동은 잘 나타내 주지만 서로 연관있는 자질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 대구보건전문대학 교수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절음의 자질들을 계층적으로 보는 계층적 자질이론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경복방언을 대상으로 순음화 현상을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본고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경복방언을 대상으로 순음화 현상에 대하여 분석한 후 결론을 맺는다.

2. 계층적 자질이론(Feature Geometry)

2.1 도입

분절음의 변별자질들이 계층적으로 조직된 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계층적 자질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개의 자질들이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거나와 서로 관련있는 자질들끼리 무리를 형성하여 음운과정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래서 서로 관련있는 자질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자질들의 계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적 자질이론의 여러 형태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제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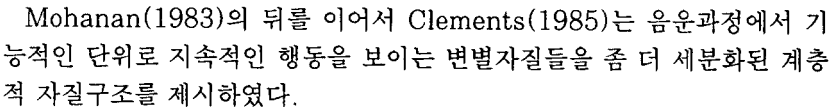
2.2 자질 계층구조의 기존 모델들

그 중에서 Mohanan(1983), Clements(1985), Sagey(1986), 김기호(1987), 오정란(1990), 신지영(1990)이 제시한 계층적 자질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어에 적절한 계층적 자질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Mohanan(1983)은 변별자질을 발성(Phonation), 공명(Sonority), 조음위치(Place)라는 기능적인 집단으로 자질층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뿌리마디가 발성, 공명 조음위치의 부류마디를 직접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후두긴장성(Constricted glottis), 후두확장성(Spread glottis), 긴장성(Tense), 이완성(Lax)이라는 개별자질은 ‘발성’에 지배되고 공명성(Sonorant), 자음성(Consonant), 지속성(Continuant), 비음성(Nasal), 설측성(Lateral), 고설성(high), 저설성(low) 등은 ‘공명’에

(2.1)



(2.2)



(2.2)에서 보인 Clements(1985)의 자질 모형은 뿌리 교점 밑에 후두성(laryngeal)과 초후두성(supralaryngeal)을 두고 있다. 후두성에는 후두 긴장성, 후두확산성, 그리고 유성성이 있는 반면에 초후두성에는 조음방법 교점과 조음위치 교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음방법의 교점에 속하는 자질로는 비음성, 공명성, 지속성, 자음성, 설측성, 조음성.(操音性)이 있으며 조음장소의 교점에 속하는 자질로는 설첨성, 전방성, 분산성, 고설성, 후설성, 원순성, 순음성이 있다.

Clements(1985)의 자질구조는 많은 언어에서 초후두자질과는 무관하게 후두자질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후두자질에는 관계없게 초후두자질에만 관계되는 음운과정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후두과열음(?)과 후두마찰음[h]에 대하여 초후두자질을 비워놓음으로써 경음화와 격음화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다. 즉 이런 현상들을 후두자질의 확산(spreading)으로 기술할 수 있다.

Clements(1985)의 계층적 자질구조가 Mohanan(1983)의 것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규칙들은 자질의 확산(spreading)또는 상실(delinking)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분절음의 복선음운론 표시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동화와 같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제공해 준다. 둘째, Mohanan(1983)이 자질구조를 조음적, 음향적인 것에 중점을 둔 반면, Clements(1985)는 음운과정에 의해 증명된 자질들의 관계에 관심이 주어졌다.

Sagey(1986)는 Clements(1985)의 계층구조의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또한, Sagey(1986)는 조음자(articulator)에 기초한 자질 구조를 제안했다.

Clements(1985)의 후두자질과 초후두자질의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Clements(1985)의 초후두자질에 지배되는 조음방법 교점을 없앴다. 즉, 조음방법 교점에 있던 공명성 자질과 조음성(操音性)자질은 사라지게 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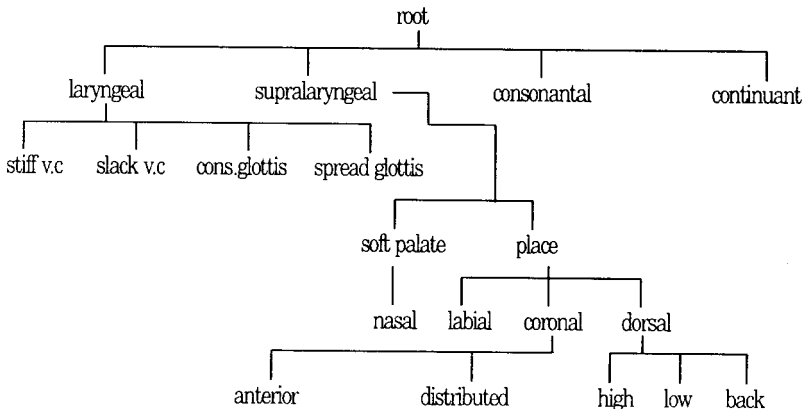
1) [Sonorant]와 [Strident]는 음향적 속성을 지닌 잉여적 자질로 보아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Sagey(1986)의 계층구조의 모형은 주로 음성적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음자 교점설정의 가장 큰 근거는 양순-연구개음 (labio-velars) 같은 복합 분절음(Complex Segment)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래서 조음 위치 교점의 하위부류를 양순음(labial), 설첨음(coronal), 설배음(dorsal)으로 나눈다. 양순음은 원순성 자질, 설첨음은 전방성과 분산성 자질, 설배음은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자질을 각각 거느리게 된다. 또한 초후두자질에 영향을 받는 연구개음 아래에 비음성 자질이 있다.

한편, 후두자질에는 경직유성성, 이완유성성, 후두긴장성, 후두확산성 자질이 속한다. 그리고 Clements(1985)의 조음방법 교점에 속해 있던 지속성 자질과 자음성 자질이 Sagey(1986)에서는 뿌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직까지는 자질의 내적 구조가 정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개별 언어 특유의 음운과정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조그마한 변화들이고 주된 틀은 Clements(1985)와 Sagey(1986)의 것과 동일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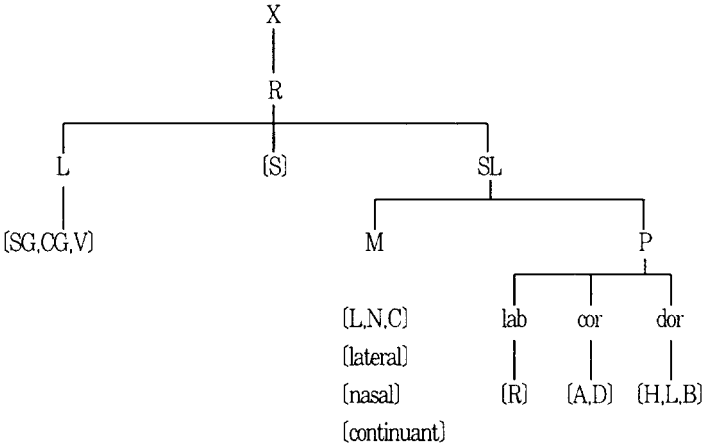
(2.3) Sagey(1986)



이제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생각하면서 계층적 자질구조의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어에 제일 먼저 적용한 사람이 김기호(1987)이다. 김기호(1987)는 Sage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계층적 자질구조를 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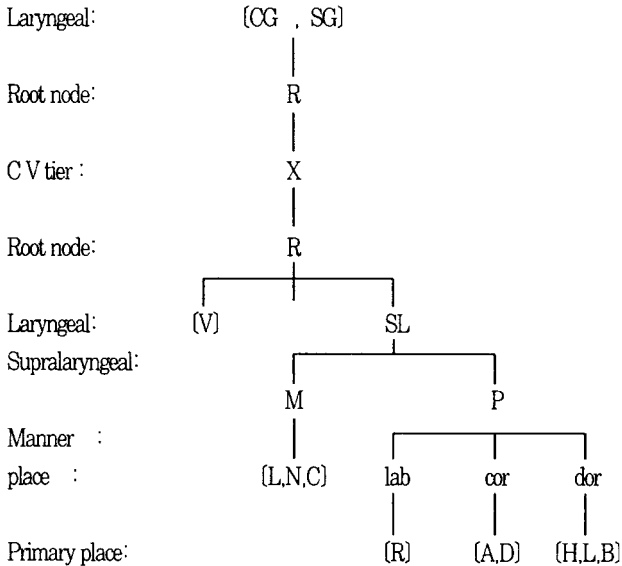
였다. 그는 Sagey(1986)의 연구개 마디 대신에 Clements(1985)의 조음방법 마디를 사용하였다. 즉 Clements(1985)의 후두자질과 초후두자질의 개념과 Sagey(1986)의 조음장소 마디의 개념을 혼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명성 자질은 확산 혹은 상실이라는 선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기 위하여 뿌리 교점에 직접 연결시켰다.

(2.4) 김기호(1987)



오정란(1990)은 김기호(1987)의 계층적 자질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자질구조의 모델을 수정해서 제시하였다.

(2.5) 오정란(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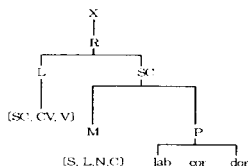
오정란(1990)은 국어의 음운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김기호(1987)의 모델이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그의 층위도는 기저형에 존재하는 음운의 변화과정은 설명이 가능하나, '경음화'와 같이 존재하지 않던 음소의 자립적인 출현에 의한 음운과정에 대해서는 무력하므로 후두자질의 위상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뿌리마디에 직접 지배받는 [+S](공명성)자질의 확산 혹은 설정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S]자질은 Clements(1985)의 층위도에서 증명된 것처럼 초후두층위의 조음방법 마디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국어 음운현상에 있어서 장애성자질인 [+O]의 설정에 대한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음절말중화, 경음화현상 등은 [+O]가 동인이 되고 있다면서 [+O]는 조음방법 마디의 하위부류인 자질로써 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O]는 [-L, -N, -C]와 등가관계이므로 조음방법 마디의 ㄹ표기로 대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지영(1990)은 국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김기호(1987)와 오정란(1990)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수정된 자질 층위 모

텔을 제시하였다. 우선 오정란(1990)의 모델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첫째, 오정란(1990)의 모델은 하나의 CV층위에 상층과 하층의 두 개의 뿌리마디와 후두마디를 두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즉 국어의 유성음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평음의 유성음화는 설명이 가능하나 경음이나 기음이 유성음과 이웃했을 경우의 설명력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국어에는 유성기음이나 유성경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²¹⁾ 둘째, 공명성자질을 설정하지 않고서 방법동화인 비음화와 유음화의 설명에서 보여준 기저형의 불일치가 수긍하기 어렵다. 즉 비음과 유음의 기저표시에서, 비음화의 설명의 방법을 따르면 자신이 유음화에서 부정했던 방법을 따르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유음화의 설명방법을 따르면 기저형에서 /t/와/n/, /s/와/l/의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지적했다. 셋째, [+O]자질의 설정에 있어서 잠재표기된 M마디 (=M)가 [+O]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국어에서 이 [+O]자질이 경음화의 동인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장애음이란 일반적으로 파열, 파찰, 마찰음을 포괄하는 공명성 자질을 갖지 않은 자음들을 묶는 자질인데, 마찰음의 경우는 지속성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O]=M의 공식은 /s/의 경음화를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1990)은 또한 김기호(1987)에서 제시된 모델 내의 자질 위계구조의 설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수정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김기호(1987)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지영(1990)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R마디에 분지되고 있는 L마디, SL마디, [+S]마디의 검토를 통해서, 국어의 경우에도 McCarthy(1988)가 주장한 바와 같이 SL마디는 한덩어리로 행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SL마디의 위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L마디와 [+S]마디도 그 마디들의 설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 두 마디의 위치가 위계 구조내의 같은 위치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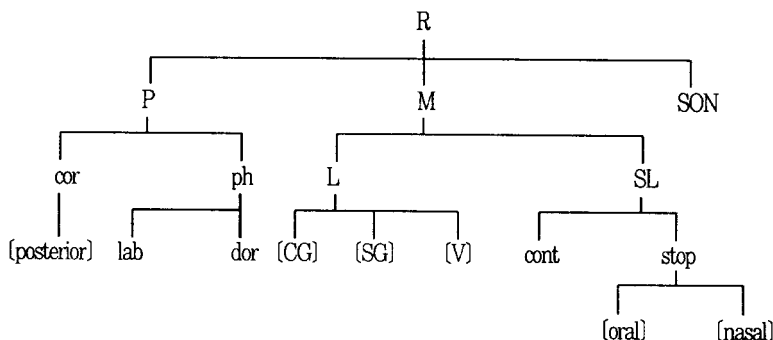
1) <오정란은 자신의 모델(1990)을 수정하여 새로운 모델(1993)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1993)은 후두마디에 [SG]자질과 [CG]자질을 넣고, 초후두마디의 조음방법에 '공명성' 자질을 삽입시켰다. 이것이 오정란 자신의 모델(1990)과 차이점이다.>



있는가에 문제점을 던지면서, Son마디의 존재가 L마디의 자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L마디는 위계구조 내에서 Son마디 보다 하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1990)은 국어의 음운현상에 적절한 자질 위계 구조의 모델 즉 오정란(1990)과 김기호(1987)의 것들을 검토, 비판하고 McCarthy (1988)의 해결방안을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2.6) 신지영(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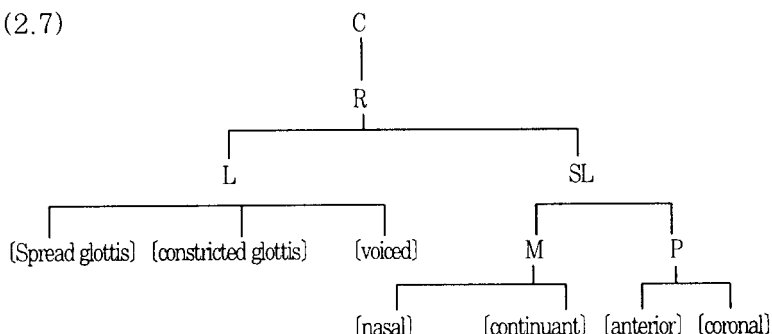
신지영(1990)의 모델은 위에서 살펴본 다른 학자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모델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신지영(1990)은 뿌리마디 밑에 Son마디, P마디 그리고 M마디를 각각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S마디는 그 하위에 부류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P마디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신지영(1990)은 P마디는 위치동화과정에 의해 그 위계구조를 검증받아야함을 전제하면서 가장 무표적인 설정마디(coronal node)와 그 보다 유표적인 입술마디(labial node)와 혀몸마디(dorsal node)를 묶은 주변부마디(peripheral node)로 분리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지영(1990)이 설정한 M마디는 기존의 학자들이 설정한 M마디와는 개념이 다르다. 즉 신지영(1990)의 M마디는 기존의 학자들이 자질계층구조에서 언급한 M마디는 물론이거니와 L마디까지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지영(1990)의 M마디는 조음기관과는 관계없는 공기의 흐름, 즉 기류과정을 의미하게 되며, L마디는 후두에서의 기류과정을 의미하고 SL마디는 후두 위쪽에서의 기류과정만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서 L마디는 앞에서 언급된 Clements(1985), 김기호(1987), 오정란(1990)의 것과 마찬가지로 {CG},{SG},{V}의 자질을 분지시킨다. SL마디는 허파로부터 성문을 올라온 공기의 흐름이 후두의 윗쪽에서 마찰되는가 파열되는가를 기준으로 지속성(cont)마디와 파열성(stop)마디로 분지되게 되고, 다시 파열성마디는 구강에서의 파열인가, 비강에서의 파열인가를 기준으로 구강(oral)자질과 비강(nasal)자질로 분지되게 된다.

2.3 경북방언의 자질계층구조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학자들의 계층적 자질구조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제시된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어에 적절한 자질 계층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방언의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고려하여 설정된 자질 계층구조이다. 그렇다고 이 자질 계층구조가 타방언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2.7)



인간의 음성기관은 언어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성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그래서 (2.7)의 자질 계층구조는 음성기관에서 장애를 받거나 울리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음 즉 조음방법에 의한 것을 고려하여 만듦과 동시에 한국어에 나타나는 음운현상

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2.7)을 좀더 자세히 언급하면, 허파를 떠난 공기가 후두(larynx)를 지나서 인두(pharynx)사이까지 오면서 나타내는 음을 후두마디(laryngeal node)로 한다.

그리고 인두를 지나서 구강(oral cavity)을 통하여 나오는 음과 비강(nasal cavity)을 통하여 나오는 음이 있는데 이들을 초후두마디(supralaryngeal)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후두에서 나오는 음은 조음위치가 동일하게 후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후두마디에 지배되는 자질들은 조음위치와는 상관없이 후두성 표시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초후두에서 나오는 음은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후두마디는 격음,경음,유성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후두확산(spread glottis), 후두긴장(constricted glottis), 유성성(voiced)자질을 하위 자질로 두었다. 초후두마디는 조음위치마디와 조음방법마디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초후두마디와 관련된 음은 조음방법과 조음위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만들어낸다. 그러면 먼저 조음위치 마디를 보면, 그 하위 자질로써 [anterior]와 [coronal]을 설정했다.

조음위치의 하위자질로써 [anterior]와 [coronal]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경북방언의 자음체계를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을 보면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네 위치를 변별할 수 있는 자질로써 [anterior]와 [coronal]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음방법마디를 보면, 조음방법의 하위 자질로써 [nasal], [continuant]를 설정했다.

3. 순음화

3.1 자질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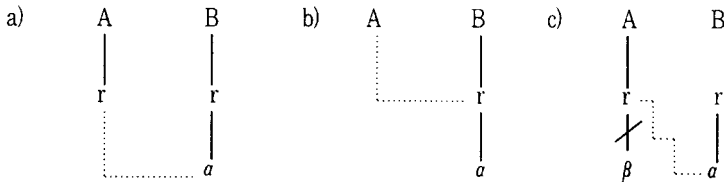
계층적 자질이론에서 순음화라고 하는 것은 확산(spreading)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확산이란 동화되는 음이 동화를 유도하는 분절음의 자질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자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확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3.1) 확산원리

- a) 자질의 확산은 구조적 표적(target)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b) 자질이나 마디의 확산은 빈자리로만 일어날 수 있다.

(3.1.a)는 마디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3.1.b)는 기존의 연결된 자질이 있을 때는 자질의 상실(delinking)이 자질의 확산(spreading)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³⁾ 그리고 자질의 확산은 점선(.....)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3.2)



(2.a)는 B에 연결된 γ 부류 마디는 a 자질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A의 γ 부류 마디로 a 자질이 확산되는 것이고 (2.b)는 a 자질이 A로 확산은 일어나지 않지만 a 의 부류 마디인 γ 가 A로 확산될 수 있다. (2.c)는 A가 β 자질로 되어 있으므로 (1.b)의 의미에 의해서 β 자질을 먼저 끊고 B에 있는 a 자질을 확산 받아야 한다.

3.2. 순음화

일반적으로 순음화는 설정적 자음이 순음 앞에서 순음으로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⁴⁾

3) 신지영(1990)은 (1.b)의 의미를 확산과정이 상실 과정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여기에서 설정적 자음이라는 것은 가장 미명세화된 자음인 치조음에 한정하기로 한다.

3.3)

a. 산마루

/sanpoŋoli/	[sampoŋori]	〈울진〉
/sanmanteŋi/	[sammandeŋi]	〈상주, 경산, 고령, 달성〉
/sanmalləŋi/	[sammalleŋi]	〈선산, 칠곡〉
/sanmalləŋi/	[sammallaŋi]	〈월성〉

b. 원망

/wɯŋ:ma /	[wɯŋ:mmaŋ]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영일, 성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월성〉
-----------	------------	--

c. 안방

/anp'aŋ/	[amp'aŋ]	〈영풍, 봉화, 울진, 군위, 성주, 칠곡, 고령, 달성〉
/anp'Eŋ/	[amp'Eŋ]	〈영일, 경산, 청도〉
/anpaŋ/	[ambaŋ]	〈영천〉

d. 안변소

/anbEnso/	[ambEnso]	〈문경, 월성〉
/anbinso/	[ambinso]	〈영양〉

e. 윗마을

/usmaa/	[ummaa]	〈영풍, 문경, 예천, 상주, 청송, 영덕, 선산, 영일, 성주, 경산, 영천, 월성〉
/usma+l/	[umma+l]	〈울진, 군위〉
/usmasil/	[ummasil]	〈의성, 달성〉

(3.3.a~d)는 음절말 설정적 자음인 /n/이 후행 음절초 자음인 순음에 동화되어 순음[m]으로 되는 경우이고, (3.e)는 음절말 자음 /s/가 /t/로 중화되었다가 다시 후행 음절초 자음인 순음/m/에 동화되어 순음[m]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3)에서 나타난 음운현상인 순음화를 SPE의 규칙에 의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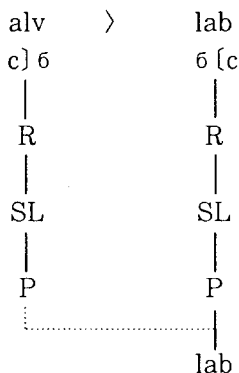
(3.4)

$$\begin{bmatrix} C \\ \text{cor} \end{bmatrix} \quad [-\text{cor}] / \quad \begin{bmatrix} C \\ +\text{ant} \\ -\text{cor} \end{bmatrix}$$

[설정적 자음(1자음 제외)은 순음 앞에서 순음으로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SPE규칙으로는 (3.3)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n/과 /s/가 [m]으로 동화는 가능하지만 그 역인 /m/혹은 /p/인 순음이 [n]혹은 [s]와 같은 치조음으로 동화되지 않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없다. 앞의 자질 위계구조를 설정한 여러 학자 중 한국어의 음운과정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만든 김기호(1987)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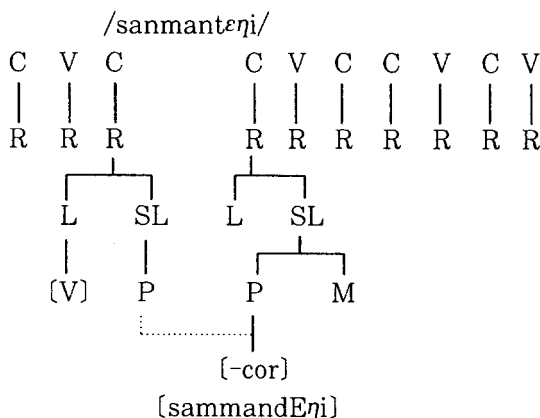
(3.5) 위치동화 (위치자질 확산)



(3.5)에서 치조음이 인접한 순음의 영향으로 순음마디를 오른쪽으로부터 확산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치조음의 위치가 미명세되어 있기 때문에 자질 확산의 목표물이 되어 순음마디가 확산된다.

한편 필자가 제안한 자질위계구조에 의하여 (3.3)의 음운현상 중 대표적으로 /sanmantɛŋi/의 순음화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6)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조음위치 마디가 비어 있고 /m/의 조음위치 마디는 [-cor]자질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화라는 것은 명세되어 있는 유표적인 것이 미명세된 무표적인 것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런데 (3.4)의 SPE규칙에서는 /n/이 [m]으로 동화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역인 /m/이 [n]으로 되는 현상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역이 성립되지 않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즉 무표적인 조음위치가 [-cor]자질이 있는 유표적인 위치마디로 확산될 자질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cor]자질의 확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연하면 무표적인 치조음이 유표적 [-cor]자질을 지닌 양순음으로 확산될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그 역이 성립되지 않는 예들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3.7)

a. 값도

/kapsto/

[kapt'o]

〈경북 전지역〉

b. 굽도리

/kuptoli/

[kupt'ori]

〈영풍, 예천, 영양, 상주, 칠곡〉

c. 맵다

/mɛpta/

[mɛpt'a]

〈영풍 제외한 경북 전지역〉

d. 엄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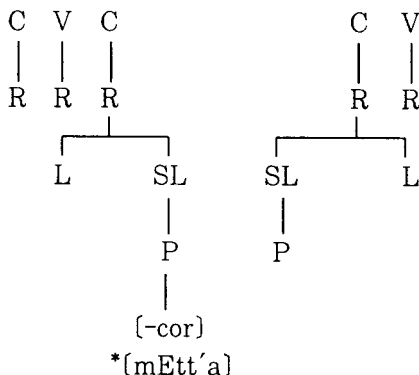
/ɛmsal/	[ɛmsal]	〈안동, 금릉, 영일, 성주, 칠곡, 경산, 영천, 달성, 청도, 월성〉
/ɛms'al/	[ɛms'al]	〈영덕〉

e. 입술

/ipsul/	[ipsul]	〈영풍, 봉화, 안동, 영양, 상주, 영덕, 영일, 성주, 칠곡, 영천〉
/ipsɛli/	[ipsɛri]	〈울진〉
/ipsɛpɛli/	[ipsɛbɛri]	〈문경, 달성〉
/ipsɛpuli/	[ipsɛburi]	〈예천, 청도〉
/ipsɛpul/	[ipsɛbul]	〈의성, 청송, 월성〉
/ipsusuli/	[ipsusuri]	〈금릉〉
/ipsɛpɛl/	[ipsɛbɛl]	〈선산, 군위〉
/ipsipɛli/	[ipsibɛri]	〈경산〉
/ipsupɛli/	[ipsubɛri]	〈고령〉

(3.7.a~c)는 무표적 치조음 /t/가 유표적 양순음인 /p/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확산이 일어난다면 (3.7.a~c)의 표면형은 *[katt'ɔ], *[kutt'ori], *[mɛtt'a]으로 나타나게 된다. (3.7.d~e)는 무표적 치조음 /s/가 유표적 양순음 /m/혹은 /p/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확산이 일어난다면 *[ɛssal], *[ɛss'al], *[issul], *[issɛli]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릇된 표면형을 대표적으로 (3.7.c)의 예를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8) /mEpta/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의 자질 계층구조의 P마디 아래에서는 미명세 이론에 의하여 명세된 자질이 없기 때문에 자질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다. 또한 만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자질 확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그릇된 표면형인 *[mEppa]가 나오게 된다.

(3.9)

a. 콜무

/kolpi/	[kolbi]	<영풍>
/kolmi/	[kolmi]	<영풍, 울진, 금릉, 월성 제외한 전지역>
/ko:lmi/	[ko:lmi]	<울진, 금릉, 월성>

b. 달무리

/talmul/	[talmul]	<영풍, 울진, 문경, 예천, 영양, 상주, 의성, 금릉, 영일, 성주, 칠곡, 경산, 고령, 달성, 월성>
/talmulE/	[talmurE]	<봉화>
/talmE/	[talmE]	<안동, 청송, 영덕>
/talcimi/	[taljimi]	<선산>
/talmuli/	[talmuri]	<군위>
/talmɛli/	[talmɛri]	<영천>

/talmal/	[talmal]	〈청도〉
c. 풀무		
/p ^h ulmi/	[p ^h ulmi]	〈영풍, 문경〉
/pulmi/	[pulmi]	〈봉화, 울진, 예천, 영양, 상주, 청송, 영덕, 선산, 영일, 칠곡, 경산〉
/p ^h ulmE/	[p ^h ulmE]	〈의성〉
/pulmu/	[pulmu]	〈금릉〉
/pulmE/	[pulmE]	〈군위, 성주, 영천, 고령, 청도, 월성〉
d. 할머니(호칭)		
/halmɕi/	[halmɕi]	〈영풍, 안동〉
/halmɛ/	[halmɛ]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영일, 칠곡, 영천, 고령, 청도, 월성〉
/halmui/	[halmui]	〈성주, 경산, 달성〉
e. 달팽이		
/t ^h ɕ :lp ^h Ei/	[t ^h ɕ :lp ^h Ei]	〈영풍〉
/ta :lp ^h Ei/	[ta :lp ^h Ei]	〈봉화, 칠곡, 달성〉
/t'ɕ :lp ^h Ei/	[t'ɕ :lp ^h Ei]	〈울진, 예천〉
/muntɯŋk'olpEi/	[mundɯŋk'olbEi]	〈안동〉
/talp ^h ii/	[talp ^h ii]	〈영양, 상주〉
/tɕ :lp ^h ei/	[tɕ :lp ^h ei]	〈의성〉
/th+lp ^h ei/	[th+lp ^h ei]	〈영일〉

(3.9)는 음절말 자음이 설정적 자음인 치조음임에도 불구하고 후행하는 음절초 자음인 순음에 동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후행하는 순음이 지나고 있는 [-cor]자질이 선행하는 설정적 자음 /l/에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SPE에서는 순음화 규칙을 설정할 때 단순히 설정적 자음 중 /l/은 제외한다고 하는 예외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질 계층이론에 의하여 설명하면, 치조음인 /l/이 설정적 자음임에도 순음 /m/ 혹은 /p^h/의 [-cor]자질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치조음이

아닌 위치로 /l/을 동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자음 목록에는 단 하나의 유음인 /l/이 있어서 유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치조음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어떠한 동화 규칙도 유음 /l/에 [-cor]자질을 확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치조음인 /l/은 구조보존원리에 의해서 위치 자질이 변화될 수 없다.

4. 결 론

생성음운론에서 분절음은 변별자질의 집합체로 보아 변별자질을 최소 단위로 삼은 것에 비해서 자립분절이론에서 변별적 자질들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 조음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분절이론은 서로 연관 있는 자질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절음의 자질들을 계층적으로 보는 계층적 자질이론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자질 계층구조의 기존 모델들을 검토하여 국어에 적절한 계층적 자질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순음화현상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필자가 제안한 자질계층구조에 의하여 순음화현상을 검토하면, 초후두 마디의 하위부류인 위치마디에 속해 있는 [-cor]자질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연하면 순음의 조음위치 마디는 [-cor]자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는 조음위치 마디는 치조음이다. 그래서 유효적인 순음의 위치마디에 속해 있는 [-cor]자질이 무표적인 치조음의 위치 마디로 [-cor]자질이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동화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지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SPE의 규칙으로는 설명이 곤란하지만 자질계층이론에서는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경란(1990) 「최근 음운이론의 한국어 적용」 언어연구 7. 대구언어학회.
- 김무림(1992) 『국어음운론』 한신문화사.
- 김선희(1993) 「음운론에서 규칙과 과정: 국어 저해음간의 음운현상」 언어 18권 2호 한국언어학회
- 신지영(1990) 「국어 자음체계의 기저표시와 음운현상」 고려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손형숙(1994) 「외래어의 음가 인식과 음운론적 구조 보존」 언어연구 11 집 대구언어학회.
- 오정란(1993) 『현대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 Kang, Yong-soon(1991) "Phonology of consonant-vowel interac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dependency phonology" 한신출판사.
- Kim, Kee-ho(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한신출판사.
- Clements, G.N.(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yearbook 2.
- Mohanan, K.P.(1983) "The structure of the melody" unpublished paper, MIT.
- Sagey, E.C.(1986) "The representation of features and relations in non-linear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 Sohn, Hyang-sook(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한신출판사.